정조공파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식

안동권씨 정조공파종회(正朝公派宗會 : 회장. 권인탑)는 7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중앙로(동부동) 정조공파회관 4층에서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권인탑 정조공파회장을 비롯하여 권재주 안동종친회장, 정조공파 고문, 역대 회장, 종회 자녀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망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회장인사, 보학강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인탑 회장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권인탑 회장은 이날 정조공파종회 자녀로서 학업에 정려(精勵)하고 앞으로 숭조정신 함양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수가 될 수 있는 권준협군(농협대학. 1학년) 등 남여 대학생 30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수여식을 마친 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위가 계속되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안동권씨는 전국 각지에 살고 있지만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대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청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재주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안동권씨 15개 파(派) 가운데 종회 자녀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파는 정조공파 뿐이라"고 추켜세운 후 "남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큰 꿈을 가져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정조공파 자녀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派는 해마다 30-35명에게 1인당 30만원 씩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모두 4백 38명에게 총 1억 3천 1백 40만 원을 지급했었다.

2부 행사에서 권기만 전 회장은 안동권씨 사성유래, 안동권씨 15파 원류도(源流圖), 정조공파 계도(系圖), 안동권씨 각파별 인구분포도 등 7개 항의 자료를 가지고 30분 동안 보학강좌를 실시하였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회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돼지갈비와 곁들여 점심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즐기다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성동의원 국정원국조특위 간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재선된 새누리당 권성동의원(강릉. 53세. 복야공파 37世)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강릉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등을 거쳐 새누리당 강원도위원장으로 국회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법무비서관을 거쳐 2008년 10월 제18대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씨는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에 성공한 비법은 뭘까. 그는 강릉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했다.

직접 현장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를 들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검사는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주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정치는 달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더 옳다' 고 생각할 수 있는게 정치입니다." 한편 권의원은 요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진두지휘하면서 끔끔함과 추진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그는 국조특위가 과거의 진상규명보다 미래 국정운영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정쟁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 맡겨 놓고, 앞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을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하자는 거죠."

권의원은 강릉시민 여러분과 함께 특히 이뤄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원주-강릉 복선전철, 저탄소녹색시범도시 건설에 행복만들기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상권의 활성화, 지역복지와 경제발전에 신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7.22 이미호기자 인용〉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필사 15세기 중반

回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그 후 단종은 1681년(숙종 7)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1698년에 비로소 '단종' 이라는 묘호로 추증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현덕왕후와 단종의 부첨은 사육신 사건과 연루되어 후대에 강제로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족도는 일단 1456년 사육신 사건 이전에 제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동권씨족도」를 보면,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權專(1372-1441)은 '景惠公' 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호는 1441년에 내려졌다가, 1456년에 "권전은 그 아내와 아들 권자신의 대역죄로, 몸은 비록 죽었다 하여도 의당 법에 따라 고신告身을 추탈하고, 무덤 위 석물도 철거하고 제사도 없애야 한다."고 하여 취소되었고 1699년(숙종 25)에 복권되었다. 그래서 이 족도의 하한은 시호가 취소되는 145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한편 단종의 외삼촌인 권자신權自愼(1418-1456)은 '承旨' 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는 1453년(단종 1)에 동부승지, 우부승지, 1454년(단종 2)에 좌부승지, 우승지, 1455년(세조 1)에 호조참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3등에 이르렀으나, 1456년(세조 2)에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그래서 이 족도의 상한은 승지가 되는 1454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권전의 동생이자 권촌權忖의 아들인 권자공權自恭(?-1453)의 경우도 '承旨' 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는 1452년(문종2)에 승지가 되었다. 또한 권징權徵의 경우도 정자正字(정9품)로 기재되어 있는데, 1447년(세종 29)생원시, 1450년(세종 32)문과에 급제하고 1453년(단종 1)에 정자가 되었다. 그는 후에 저작著作(정8품)을 거쳐 1457년(세조 3)에 형조, 공조 좌랑, 1463년(세조9)에 사헌부 지평平(정5품)이 되고, 1467년(세조 13)에 이시애의 난에 평사評事(병마도사)로 참전하였다가 죽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안동권씨족도' 는 제작 상한이 권자신이 승지가 된 1454년(단종2)이후, 하한은 권전의 시호가 취소되는 1456년(세조 2)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대개 단종의 즉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록한 부분은 권자신의 아들 권하의 내외자손도로, 기록이 소략하지만, 대략의 추록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 즉 권하의 외현손인 고응척(1531-1605)은 '縣令'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족보 등에 기재된 관직이 '사성司咸' 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고한운(1552-1601)도 '縣監'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573년(선조 6)에 진사, 1585년(선조 18)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권하의 6대 외손에 해당하는 금각주琴角奏의 경우, 권호문(1532-1587)이 형인 금궁주琴宮奏의 자설字說을 지었는데, 권호문의 생몰이 16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금각주 및 그의 아들 금호琴號의생몰도 17세기 초반으로 보인다. 이처럼 권하의 자녀후손들의 생몰 하한 연도가 17세기 초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록 부분은 17세기 초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제작이유

조선초기 왕실족보는 왕실의 세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1412년(태종12)에는 왕실내의 처첩과 적서 구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계祖系를 서술한 「선원록璿源錄」, 종자宗子를 서술한 「종친록宗親錄」, 종녀宗女, 서얼을 서술한 「유부록類附錄」등을작성하였다.

그리고 1471년(성종 2)에는 외척들을 회유하기 위해 왕친과 외척의 인적사항을 수록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작성하였다. 이전에는 왕후王后의 족친들을 족친위에 소속시킬 때 보단자保單子와 족도族圖만을 상고하여 촌수를 따지고 병조에 이문하게 하였다. 하지만 세대가 멀어질수록 폐단이 예상됨에 따라 왕후의 족친 중에서 직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자를 골라 따로 족친의 촌수를 마감한 후 3년마다 돈녕부에 기록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에 '각전팔조족도各殿八祖族圖' 란 이름으로 왕실의 팔조를 족계 범위로 한 족도가 모색되었다. 이것은 지금의 왕실 팔고조도의 원형으로 여겨지는데, 1489년(선종 20)에는 종부시宗簿寺에서 왕의 명령으로 대왕족도大王族圖에 이어 별도로 왕비족도王后族圖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왕과 왕후의 족도인 팔고조도는 왕의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왕위를 계승한 왕에게는 필수적인 보첩이었다.

이러한 왕실보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선원계보기략」 단종대왕팔고조도와 「돈녕보첩」문종공순대왕 현덕왕후 권씨 편이다. 단종의 팔고조도는 단종이 숙종대에 복위되어서 영조대에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 단종의 외증외가인 권여온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654년의 「돈녕보첩」(K2-1545)에는 단지 현덕왕후만 수록되어 있고, 1726년 「돈녕보첩」(K2-1638)에는 부父 권전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864-1896년에 간행된 「열성왕비세보」(종친부 편)에는 권전(부) 권백종(조) 권정중(증조) 권휴(고조) 등 현덕왕후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권백종의 부인으로 권여온의 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융희 연간의 「돈녕보첩」(K2-1687)에는 현덕왕후의 고조 권휴, 증조 정평(정중), 조 백종, 부 전까지 기재되어 있고, 여타 외증조 최득전, 외조 최용, 조모부 권여온, 외조모부 지남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에 최득전과 지남기는 팔고조도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돈녕보첩」을 작성한 성종대에는 현덕왕후 및 단종이 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선대를 기록하지 않다가, 이들이 모두 복위된 숙종대 이후에야 그들의 가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팔고조도에 단종의 외외가 및 외외증외가에는 고조가 아예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종의 외증외가가 기재되어 있는 「안동권씨족도」가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단종의 팔고조도의 내용을 보면, 「안동권씨족도」는 현덕왕후와 연계된, 단종의 외증외가外曾外家 족도로 보여진다. 현덕왕후의 본가인 권정중을 기점으로 하는 단종의 외가外家 족도가 아닌,외조모부인 권여온을 기점으로 하는 외증외가 족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더구나 「해주오씨족도」 및 여주이씨 소장 족도 「진성이씨세계」 등에서이미 족도가 팔고조도에 준해서 작성되었을 것으로추정될 때, 「안동권씨족도」도 팔고조에 해당하는 8개의 족도 가운데 하나인 단종의 외증외가 족도로 보여진다. 이에 권정중을 기점으로 하는 별도의 외가족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족도는 단종의 즉위와 관련하여 단종의 왕통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동권씨족도」가 15세기 교서 및 계회도의 장황 형식과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비단에 묵서를 하고 「강릉김씨족도」와 같이 붉은 색 계선으로 가계를 이었다는 것은 이 족도가 곧 왕실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계기록 방식과 내용

가계기록방식

■ 자녀 기재

「안동권씨족도」는 조선초기 족도 및 족보의 특징과 같이, 자녀는 출생순에 따라 각 인물의 관직과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해주오씨족도」에는 아들과 딸의 차서를 '幾子', '幾女' 로 구분하거나, 딸(사위)의 경우는 '壻' 또는 '女子' 로 기재되어 있다. 「안동권씨성화보」에는 미혼인 딸을 '女' 만 기재되어 있고, 시집간 딸의 경우는 '女夫' 및 사위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재가再嫁한 경우 '前夫', '後夫' 로 표시되어 있다. 아들의 경우도 성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기재하거나, 이름 없이 '子' 만 기재된 경우도 있다. 즉, 사위는성을 붙이고 아들은 성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안동권씨족도」에도 아들과 딸의 차서는 구분 없이 '子', '女' 로만 기재되어 있다. 딸의 경우는 「안동권씨성화보」와 같이 미혼인 경우에는 '여' 라 하고 자리를 비워 두었다. 예컨대 권천수權千壽의 경우 딸만 4명인데 모두 '女' 로만 기재되어 있다. 김담金湛의 경우 4남 3녀를 두었는데, 출생순으로 1녀는 사위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3녀는 '女' 로만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2,3녀 뒤로 태어난 아들의 경우에는 모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즉, 아들과 사위의 구분없이 모두 성을 붙이고 있다.

■ 적서 구분

「해주오씨족도」와 「안동권씨성화보」등 초기 족보에는 적서嫡庶 구분이 없이 출생순으로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안동권씨족도」에는 출생순으로 자, 여가 기재되어 있지만, 적서를 구분하여 첩 소생의 경우에는 적자녀嫡子女 다음에 '妾子', '妾女' 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태종이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 을 편찬하여 왕실내의 처첩과 적서 구별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얼은 '유부록' 에 따로 기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족도 가현덕왕후의 외가 및 단종의 외증외가의 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서를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無後' 라고 표시되어 있고, 조선후기의 족보에는 양자를 세워 대를 잇는 입후立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안동권씨족도」에는 '無後' 라는표시가 없어, 조선전기 족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직역 표기

「안동권씨족도」는 조선후기 족보와 다르게 단지 출생순으로 남녀를 구분하고, 이름 앞에 최고의 직함, 내지는 직역이 기계되어 있다.

이 족도에는 직역으로 '유학' 과 '학생' 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유학이나 학생은 일반적으로 성균관成均館, 사학四學, 향교鄕校의 학생 또는 적籍을 둔 사람을 말하는데, 조선후기에는 '유학' 은 살아 있을 때, '학생' 은 죽었을 때 표기하는 직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동권씨족도」에는 권륜과 권연의 후손들은 모두 '학생' 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그 이하 권희봉과 권백종의 후손들은 대부분 '유생'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사위의 경우에는 일부 '학생'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고 추록부분에는 직함이 없는 경우 대부분 '유생' 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생몰이 확인되는 권수익權受益(152-?)의 경우에는 제작 추정시기(1454-1456)를 감안하면, 3-5살에 불과한데도 '유학로 표기되어 있고, 미혼인 딸의 남동생인 경우 대개 15세 이하일텐데 모두 '유학' 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족도에 나오는 유학과 학생은 양반의 자제 또는 양반하층에서 양인良人 상층에 이르는 넓은 신분층의 의미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부모가 病이 들면 자식은 定省(昏定晨省)을 다해야

황향선침[黃香扇枕]이란 말이 있다. 중국동한의 황향[黃香]이 홀로된 어버이를 위해 부채를 부쳐 시원하게 해드린 효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어머니의 이부자리에 알몸으로 들어가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드린 일화는 유명하다. 추운 겨울철 죽순[竹筍]구해 온 맹종[孟宗]과 잉어를 구해온 왕상은 효자의 대명사이다.

[예기 곡예[曲禮]에 "무릇 자식으로 어버이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범위인자지예凡爲人子之禮 동온이하청冬溫而夏淸] 날이 저물면 자리를 펴드리고 새벽에는 살펴드린다 [혼정이신 성昏定而晨省]고 했다. 성균관과 향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자소학]의 혼정이신성[昏定晨省]하고 동온하청[冬溫夏淸]하라." 이다.

[안씨 가훈顔氏家訓]에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자식은 의원을 찾아뵙고 약을 구해야 한다. 의원은 어버이의 생사에 관계되는 사람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부모유병 자배의이구약 개이의자친지존망소계 기가오홀야父母有病 子拜醫以求藥 蓋以醫者親之存亡所係 豈可傲忽也]" 라고 했다.

이처럼 옛 선인들은 부모나 시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이유 없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몸소 약을 조제하여 맛을 보고 올리고 [부모구고유병父母舅姑有病 자부무고불이측子婦無故不離側 친조상약이이공지親調嘗藥餌而供之]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자식은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의원을 맞이하여 검진을 하고 맞는 약을 처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예기 曲藝]에 부모가 병이 들면 관예 한자는 머리를 빗지 않으며 다닐 때에는 활갯짓을 하고 걷지 않으며 말할 때는 태만한 말을 하지 않다 [부모유병父母有病 관자불즐冠者不櫛 행불상行不翔 언불정言不情]고 하여 부모의 병환을 염려하고 마침내 부모의 병이 나으면 예전과 같이 행동했다. 중국남제의 제나라 때 류검루는 과거에 급제하여 잔릉[孱陵]의 현령[縣令]이 되었다.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땀이 나자 곡절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니 아버지의 병이 위중했는데, 의원의 처방을 이렇게 내렸다. "병이 차도가 있는지 심해지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변이 단지 쓴지를 맛보면 합니다. [욕지차극欲知差劇 조상황분첨조嘗黃糞甜若]" 류검루는 주저함이 없이 변을 취하여 수시로 맛을 보았다.

병세가 깊어지자 저녁이 되면 북극성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이 대신하기를 기원하여 마침내 병환이 나았다고 하니 상분우심[嘗糞憂心]의 고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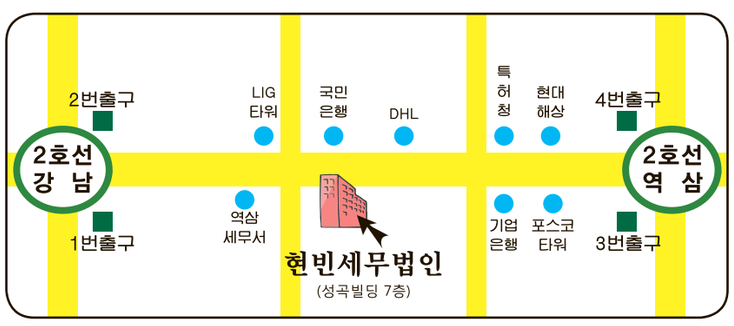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貞澤

HB Tax Accounting Corporation 현빈세무법인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대표세무사 권 영 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종원 감사
● 복야공파 34世 경북포항



◀사무실 약도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